

# 귀 국 보 고 서

소속학과	사회학과	파견대학	히티레이아 대학
학번		파견기간	2017. 3 . 6 . ~ 2017. 6 . 16 .
이름		프로그램	학기제

※ 우수 귀국보고서 선정하여 국제교류본부 연수후기에 익명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유학생 보험은 뉴질랜드 담당 유학원인 IN+OUT에게 통해 ORBIT PROTECT라는 보험회사에서 가입했으며, 학생비자 신청은 IN+OUT에서 소개한 비자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고, 비자 발급까지는 약 2주정도 소요되었다.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예매하였는데, 출국 2달 전 인천에서 출발해 오사카에서 2시간 경유하는 에어뉴질랜드 편을 예매했다.

### 나. 필요 물품(집 꾸리기)

파견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계절은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두꺼운 옷 위주로 챙겼고, 후드 티 여러 장을 챙겨갔다. 화장품, 옷과 같은 물품 위주로 짐을 싸고,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에서 구매하려고 출국 짐은 최대한 간단하게 꾸렸다. 뉴질랜드에 입국 할 때는 검역이 철저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하나도 싸지 않았다. 여행용 멀티 어댑터와 멀티 탭은 필수품이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뉴질랜드는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나, 여러 국가,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국가여서, 거리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가 쓰여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서울 보다 높다. 식당에서 한 끼 먹을 경우 약 NZD 13(한국돈 약 10,000원 정도)가 기본이며, 과일 등의 경우는 한국보다 저렴하나, 모든 것이 한국 보다 비싸다. 교통의 경우, 버스, 기차, 페리가 주요 교통 수단인데, 모든 요금은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학생등록을 하고 학생할인을 받았을 때, 짧은 거리의 경우는 NZD1.35 이지만, 보통은 NZD 2.35(한국 돈 약 1700원)이다. 학생할인을 받지 않고 일반요금 내는 경우에는 NZD 5.5(한국 돈 약 4400원)이다. 한국과 비교 해 특히 비싸다고 생각된 것은 옷과 책이다. 책의 경우 똑같은 책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의 2배 정도 된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처음에 선택할 때 학교 보다는 국가를 먼저 고려하였다.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치안 수준도 높아서 안전할 거 같아 선택하였다.

#### 나-2. 공항 □ 학교

공항에서 학교는 자가용으로 20분 정도 거리이나,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때, 뉴질랜드 유학원 담당자 분이 공항으로 픽업을 오셨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내가 들어던 프로그램은 ESOL 프로그램으로 따로 수강신청은 할 필요 없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LEVEL에 따라 달라지나, 모든 받은 READING, LISTENING, GRAMMAR, WRITING을 전반적으로 배우나, LEVEL 4의 경우는 문법위주의 수업이었고, LEVEL 5는 IELTS 시험 대비 수업이었다. 수업은 매일 9시에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3시에 끝나고, 금요일에는 12시에 끝난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스위트 등)

히티레이아 오컬랜드 캠퍼스는 본교이므로 학교 건물의 규모가 작아서 따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대부분 홈스테이를 한다. 내가 살았던 집은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였고, 집주인 아줌마와 아들, 홈스테이를 하는 중국인 학생 1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집 주변에 대형마트와 공원이 있어서 편리했다.

#### 나-5. 교내.외 활동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학교의 프로그램은 한 TEAM이 12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주에 FINAL TEST를 보고, 마지막 주인 12주는 숙업이 없으므로, 그 기간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나라가 넓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가게 되면 하루 이틀 안에 다녀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학기 중에 여행을 가고 싶다면 FINAL TEST가 끝나고 가는 것이 좋다. 옷이 비싸고,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다. 필요한 옷은 한국에서 거의 가지고 가거나, 한국에서 택배로 필요한 옷은 부치는 게 좋다. 비가 매우 자주 온다. 한번 비가 오면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현지에서 우산을 살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싸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접이식 우산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대학생활을 하면서 교환학생은 한 번 해볼만한 가치 있는 경험인 것 같다.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보다는 경제적이고, 일단 한 학기라도 경험해 보면, 분명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